

다큐멘터리 기획안

- 제 목 : 나는 가이드러너입니다
- 방송 희망일 : 2018년 6월~12월
- 촬영 장비 : UHD카메라, 오스모,고프로,드론 / 형식 : 다큐멘터리
- 제 작 진 : 연출 박채정, 작가 박시온 / 제작사 : 아이테르

*"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이에요
저는. 그런데 그게 싫지 않아요. 스키 위에서 우린 같은 꿈을 꾸니까요"*

- 가이드러너 이경희(여, 22세)

▶ 토픽성 소재

- 시각장애 스키선수와 2인1조가 되어 달리는 가이드러너는 다큐멘터리에서 깊이 다룬 적 없는 소재
- 알파인스키의 역동성과 청춘의 열정을 생동감 넘치는 UHD 영상으로 진정성 있게 전달

▶ 기획의도

시속 10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는 스키 위에서 계속 뒤돌아보며 "업", "다운"을 외치는 스물두 살 대학생 경희. 그 뒤에는 경희의 신호에 따라 점프하고, 회전을 하는 16세 시각장애 소녀 사라가 보인다. 이들은 2인1조로 스키를 타는 장애인 알파인스키 팀 국가대표다. 가이드러너 3년 차인 경희와 북경 패럴림픽 메달 기대주인 사라의 꿈은 같다.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다.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독한 언니를 자처하고,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가이드러너 경희의 꿈과 도전을 통해, 흔들리는 우리시대 청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고자 한다.

▶ 주요내용

친구들과 있을 때는 놀기 좋아하는 평범한 대학생,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을 땐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착한 딸, 눈 덮인 슬로프 위에선 냉철한 승부사가 되는, 그녀의 또 다른 직업은 '가이드러너'!

초등학교 2학년 때 스키를 처음 배운 뒤로 10년 간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달렸다. 그러다 알게 됐다.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실력이라는 것을. 하지만 막상 스키를 그만 두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 시작됐다. 어떻게든 스키를 타고 싶었다. 이때 희망을 준 건 동네 언니 고운소리였다. 세계대회 메달리스트인 양재림(시각장애인 알파인스키선수)의 가이드러너인 소리는 경희에게 가이드러너를 권했다. 경희는 가이드러너라는 새로운 직업을 통해 다시 스키를 탈 수 있었지만, 곧 새로운 시련에 빠진다. 막 사춘기에 접어든 사라와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. 사라 또래인 친동생이 발달장애가 있어서 누구보다 장애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그게 아니었다. 광과민증에 시야가 일반인의 1/10에 불과한 사라가 가파른 슬로프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만 알았다. 경기 때 선수와 가이드의 간격이 멀어지면 실력이라는 것만 생각했다.

가이드러너는 시각장애인 선수에게 신호를 주면서 자신도 스키를 타야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, 훈련기간에만 급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린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알파인스키 유망주 팀의 최장수 가이드러너 경희가 스키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?
경희와 사라는 '함께여서 두려울 것 없는' 사이로 의기투합 할 수 있을까?

▶ 주요출연자

이경희(22세, 여, 비장애인, 북경패럴림픽을 목표로 뛰는 가이드러너),
최사라(16세, 여, 시각장애인,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유망주 팀)

▶ 진행상황 1차 편집 완료